[NFT] MZ세대 사로잡은 가상자산의 신흥강자

[NFT] MZ세대 사로잡은 가상자산의 신흥강자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과 과제

지난 5월 10일 제 20대 새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AI융합 산업 집중 육성에 더해 메타버스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을 담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창출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에 대해서도 거래소 상장 등을 허용하고 금융 체계 전반을 개편할 전망이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소비자보호 및 거래 안정성 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 체계를 마련할 전망이다.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NFT



NFT 금융 서비스의 대두

전문가 칼럼 | 코스콤 리포트



금융권은 왜 메타버스에 주목하는가

전문가 칼럼 | 코스콤 리포트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전문가 칼럼 | 이슈N뉴스



글로벌 금융권 커스터디 산업의 현황과 추세

전문가 칼럼 | 이슈N뉴스



NFT 금융 서비스의 대두

카드뉴스 | 코스콤 리포트



Q&A로 알아보는 NFT

카드뉴스 | 정보&팁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조각투자란?

카드뉴스 | 정보&팁



키워드로 본 금융IT Issue 4월 #2

카드뉴스 | 금융IT 이슈 따라잡기



키워드로 본 금융IT Issue 2월 #1

카드뉴스 | 금융IT 이슈 따라잡기



[동영상]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니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